

러시아 주류시장 동향

기획조사팀

러시아 (Russia)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많은 보드카를 소비해왔으며, 21세기에 들어서는 맥주 및 와인 소비가 크게 늘어나며, 신흥맥주, 와인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 주류시장은 2008년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세계경제위기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다. 주류시장의 부진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현상이기는 하지만, 러시아의 경우 자국내 경기가 크게 위축되며 주류소비감소 현상이 다른 나라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몇년간 연 7%대의 성장율을 보였던 러시아의 GDP는 2008년에서 2009년 상반기까지 마이너스 10%대를 기록했다. 더욱이 러시아 화폐인 루블이 평가절하됨에 따라 주

류수입까지 주춤하며, 러시아내 주류시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 주류제조업체와 유통업체들의 경우 파산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2009년 하반기에 들면서 소비자들의 주류구매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언제쯤 예전 수준으로 시장규모가 회복될지는 아직 예측이 어려운 형편이다.

한편 경제위기후 러시아 주류시장에서는 가정용주류의 판매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들은 수입이 줄어들자, 술집에서의 주류 소비를 줄이고 좀 더 저렴하게 가정에서 음주를 즐기는 방안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 보드카 (Vodka) |

주종별로 보면 보드카의 종주국답게 보드카가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경



우 미국 및 서유럽에서 프리미엄 보드카의 소비가 많은 것과 달리 자국내 제조업체들이 제조한 로컬보드카가 압도

적으로 많이 소비되고 있다. 이는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대중적인 술인 보드카를 비싼 가격에 구입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로컬보드카를 즐기는 것이 당연시되기 때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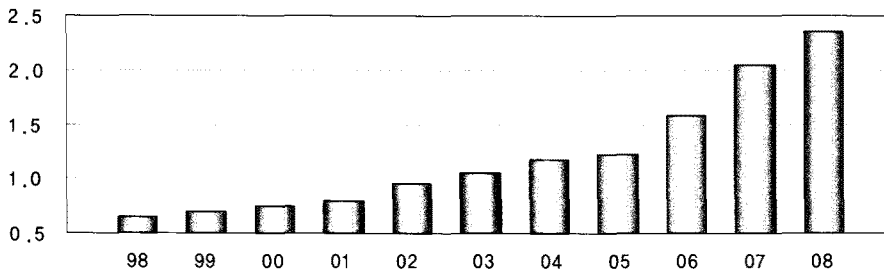
한편 일부에서는 러시아에서 소비되는 보드카의 절반가량이 불법제조주류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러시아 정부는 이와 같은 불법주류를 근절시키기 위해 2006년 납세증지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큰 효과를 거두

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대중적이고 저렴한 보드카가 자리를 굳히고 있는 러시아지만, 21세기 들어 러시아 내에서도 프리미엄보드카의 소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수입의 여유가 있는 중산층이 상 계층에서 좀 더 차별화되고 고급스러운 주류를 찾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03년 110만 상자(1상자=9Liter) 수준이었던 러시아의 프리미엄증류주 소비는 2008년 235만 상자까지 증가하였다. 2009년에는 경제불황으로 인해 프리미엄보드카의 소비 역시 주춤하고 있지만, 주요 소비층이 경제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부유층인 점으로 볼 때, 조만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프리미엄보드카 판매량변화

단위 : 백만 상자 (1상자=9Liter)



※ 자료 : Impact Databank

| 맥 주 (Beer) |

러시아 맥주시장은 지난 15년간 드라마틱한 성장을 했다. 1995년 연간 1인당 맥주소비량이 15리터에 불과했던 러시아인의 맥주 소

비량은 2009년 75리터까지 증가하였다.

서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펍(Pub)문화가 없는 러시아에서 맥주소비가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놀라운 일이며, 이런 러시아 맥주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칼스버그(Carlsberg),



AB인베브(AB-Inbev), 하이네켄(Heineken), SAB밀러(SABmiller)등 세계 유수의 맥주사들이 러시아에 진출하였다.

그러나 러시아맥주시장도 2008년도부터 소비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08년

부터 시작된 경제위기의 영향도 있지만, 그 동안의 폭발적인 소비증가로 인해 이제 점차 시장포화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러시아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맥주제조업체들은 수익증가를 위해 비용절감과 효율성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러시아 상위 5개 맥주업체

단위 : 백만 헥토리터

순위	업체명	판매량			증감(%)		시장점유율		
		2006	2007	2008	06-07	07-08	2006	2007	2008
1	Baltika/BBH(Carlsberg)	34.9	41.7	42.3	19.4%	1.4%	36.4%	37.6%	38.3%
2	AB-Inbev	18.2	21.0	20.4	15.4%	-3.1%	19.0%	18.9%	18.4%
3	Heineken Russia	14.0	15.0	15.5	7.1%	2.9%	14.6%	13.5%	14.0%
4	Efes Breweries	8.7	10.4	11.1	19.5%	6.4%	9.1%	9.4%	10.0%
5	SABmiller	5.1	5.8	5.7	14.0%	-2.0%	5.3%	5.2%	5.1%
5개사 합계		80.9	93.9	94.9	16.0%	1.0%	84.3%	84.6%	85.8%

※ 자료 : Impact Databank

회사별로 보면 칼스버그 산하의 BBH(Baltic Beverage Holdings)가 러시아 1위 맥주인 '발티카(Baltika)'에 힘입어 1위 업체에 올라있다. BBH는 2008년 러시아에서 4,230만 헥토리터의 맥주를 판매하며, 러시아 맥주시장점유율 38.3%를 차지하고 있다. BBH는 과거 영국의 스코티시&뉴캐슬(Scottish & Newcastle)사가 러시아를 포함한 동유럽 맥주시장의 잠재력을 높게 보고, 설립한 회사로 타 글로벌업체들에 한발 앞서 동유럽에서 사업을 시작한 덕분에 동유럽 맥주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다. 칼스버그는 2008년 초 하이네켄과 공동으로 스코티시 뉴캐슬을 인수하며, BBH를 보유하게 되었다.

BBH의 뒤는 AB인베브, 하이네켄, 에페(Efes Breweries), SAB밀러가 있고 있다. 이와 같은 상위 5개 업체는 러시아맥주시장의 85.8%를 차지하고 있으며, 모두 외국에 모회사를 둔 글로벌업체라는 점이 특징이다. 에페는 터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 14위 수준의 맥주제조업체로, 러시아를 포함한 동유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 와 인 (Wine) |



러시아 와인시장은 2000년 대에 들어 비약적인 소비증가를 기록하며, 신흥와인소비국으로 주목받고 있다.

2000년 5,200만 상자였던 러시아의 와인소비는 2006년 1억 2,100만 상자로 정점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6년 도입된 납세 증세도와 러시아 정부의 조지아(Georgia)와 몰도바(Moldova)와의 이웃국가로부터의 와인수입 금지조치 후 와인 소비가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몰도바산 와인수입 금지조치는 최근 해제되었다.) 특히 수입와인의 경우 루블화까지 평가절하되면서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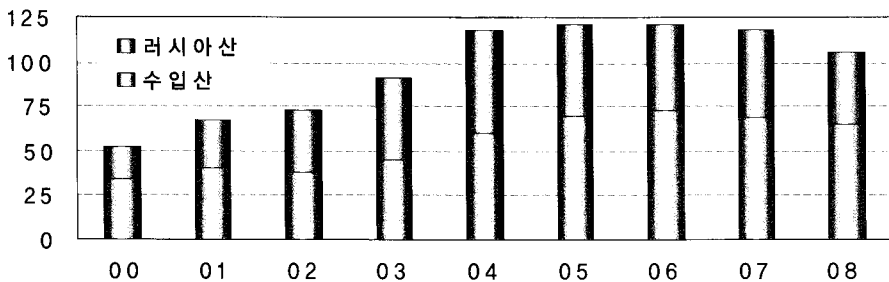
러시아에서는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와인이 많이 수입되고 있다. 평균적으로 3리터에 5달러 수준의 박스와인

이 많이 수입되고 있으며, 몰도바산 와인의 경우 병당 1.5달러 수준의 와인도 수입되고 있다. 한때 몰도바산 와인의 수입금지조치로 아르헨티나와 스페인 와인이 많이 수입되었으나, 몰도바산 와인수입규제가 해제됨에 따라 몰도바산 와인의 수입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의 와인소비감소에도 불구하고 세계 와인업체들은 여전히 러시아를 매력적인 시장으로 보고 사업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프랑스의 캐스텔그룹(Castel Group)은 2009년 초부터 2013년까지 러시아 와인시장 사업확대를 위해 6,74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컨스텔레이션(Contellation) 역시 러시아 내 판매망을 재정비하고 사업확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글로벌 와인업계에서는 러시아내 경제상황이 나아짐과 함께 와인소비량 역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러시아 와인소비량 변화

단위 : 백만 상자 (1상자=9Liter)



※ 자료 : Impact Databank